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2호

I 파프리카·토마토 수출농가 검역요건 교육

II 아산 배도 인도 수출길 올라

III 국화 '백마' 일본에 사계절 수출

IV 강원도 양구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길



농수산물 수출 Zoom In 62호 2019. 5. 24(금)

‘19.4.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31.4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0.2% 445백만불	  2.2% 1,850백만불	  10.5% 845백만불
+ 인삼류, 김치, 딸기 - 배, 유자차, 사과	+ 라면, 커피조제품, 조제분유 - 음료, 비스킷, 설탕	+ 고등어, 김, 굴 - 참치, 넙치, 오징어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20.0백만불)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국 </div> 522백만불(29.7%) ▶ O2O 허마생성 연계 김치 판촉(계속) ▶ 프리미엄유통매장 연계 유제품 판촉(계속)	 김(90%), 라면(33%)  설탕(△37%), 유자차(△23%)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미국 </div> 371백만불(4.5%) ▶ 99 Ranch 마켓 연계 삼계탕 판촉(계속)	 굴(38%), 궤련(37%)  인삼류(△45%), 라면(△15%)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일본 </div> 687백만불(3.0%) ▶ 한큐오아시스 등 연계 파프리카 판촉(~6.15)	 궤련(13%), 파프리카(1%)  참치(△22%), 김치(△4%)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ASEAN </div> 621백만불(1.1%) ▶ 베트남 Big-C Mart 등 연계 인삼류 판촉(~6.30) ▶ 베트남 Vin Mart 등 연계 스낵류 판촉(~6.30)	 참치(22%), 라면(1%)  김(△26%), 음료(△2%)
 인삼류(16%), 라면(7%)  궤련(△27%), 딸기(△3%)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홍콩 </div> 135백만불(△5.2%)
 김(32%), 라면(2%)  참치(△17%), 음료(△3%)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EU </div> 193백만불(△6.8%)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4. 30



- 파프리카

- ◇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꾸준한 수요와 더불어 5월 초 골든 위크 대비 사전구매로 수출 증가세 전환

32,705천불(0.7%)

▶ 주요 수출국 : 일본(32,626천불, 0.6% ↑), 홍콩(73, 19.9), 싱가포르(4, 127.7)

- 라면

- ◇ 중국, 인니 시장에서 한국산 매운맛 라면의 인기 지속



▶ 주요 수출국 : 중국(33,782천불, 33.0% ↑), 미국(16,231, △14.8), 인니(10,628, 76.7)

144,266천불(5.1%)



- 미역

- ◇ 일본의 건강 지향적 식습관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
- ◇ 중국으로 건조, 냉동 미역 수출 증가

16,949천불(11.7%)

▶ 주요 수출국 : 일본(9,610천불, 18.6% ↑), 중국(3,300, 13.1), 미국(1,781, △2.5)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식물검역 이슈



파프리카·토마토 수출농가 검역요건 교육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19.4.24.(수) 김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시된 「일본 수출 파프리카·토마토 ID 농가 대상 안전성교육」에 참여하여 검역 제도 및 병해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미국, 호주, 필리핀, 페루, 베트남으로의 파프리카·토마토 수출검역요건과 최근 수출식물 협상 동향, 수출식물 검역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주관의 일본 수출 채소류 ID농가의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수출 농산물 안전성 교육으로 수출관련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수출경영체 및 관계자들의 수출역량 제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산 배도 인도 수출길 올라

검역본부는 '10.2월 배 생과실에 대하여 인도측에 처음 수출 허용 요청을 하여 기나긴 협상 끝에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18.7.23일자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인도 수출검역 요령」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 해 처음 수출한 한국배영농조합법인(진주)와 전주원협(전주)에 이어 금년에는 아산(아산원예농협)배도 2월과 4월에 인도로 수출하였다. 이번에 수출된 아산 배도 인도로의 주요 수출 검역 요건인 0°C에서 40일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하게 되는 것으로 검역협상 타결이후 현재까지 20여 톤이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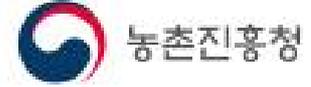
제14차 국제식물보호협약총회(IPPC) 참석

2019.4.1.~4.5일 5일간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IPPC 120개 회원국 대표단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가 개최되었고 한국은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식물검역 국제기준 (ISPM) 중 훈증소독처리 요건을 개정하였다. 또한 작년 11월 UN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지정된 2020년 '국제 식물건강의 해(IYPH, International Year of Plant Health)' 활동 계획과 전자검역증명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ISPM : International Standard Phytosanitary Measures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농진청 이슈



국화 '백마' 일본에 사계절 수출

우리 국화 '백마' (2004, 농촌진흥청 육성)가 사계절 일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백마'는 꽃이 풍성한 대형 품종으로 꺾은 꽃(절화) 수명도 한 달 정도로 길어 일본에서 평이 좋아 연중 수출을 요청 받았으나 난방비 부담으로 주로 여름철(8월~9월)에만 수출하여 왔었다. 이에 연중 생산(수출)을 위해 중국 하이난성에 '백마'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10월부터 5월까지 백마를 생산해 일본에 사계절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연간 약 20억 송이의 국화를 소비하고, 약 3억 송이를 수입하는 큰 시장이다. 백마 연중 공급으로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국내 생산품과 연계한 수출 시장 확대와 품종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산 국화 '백마'
꽃 크기 13.6cm, 꽃잎 340장 내외, 꺾은 꽃 수명 3주~4주, 장례식장 꽃바구니, 화환 등에 주로 쓰임

강원도 양구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길

농촌진흥청은 5월 7일 강원도 양구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아스파라거스는 고급 식재료로 인식되어 있어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2012년 290톤→2017년 724톤).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야간 온도 차이가 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좋다. 우리나라 아스파라거스를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3톤)이며, 2018년엔 19여 톤을 수출하였고 규격과 신선도 면에서 일본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올해는 25톤을 수출했다. 농촌진흥청은 아스파라거스 수출 확대를 위해 재배부터 수확 후 관리, 안전성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집중 컨설팅과 수출 단지 조성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을 지원해 왔다.



▲ 기념행사



▲ 컨테이너 차량 출발 축하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